https://doi.org/10.5392/JKCA.2019.19.06.655

저소득 조손가정 조모의 양육경험 연구

Study on Experience with Grandmother in Low-income Grandparent-headed Family

신명주
상지대학교

Myeong-ju Shin(touch4388@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현상학적 해석학을 바탕으로 저소득 조손가정의 조모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조모의 양육의 어려움과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이해하고자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 조손가정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경험은 경제적 어려움, 노후의 걸림돌이 된 손자녀, 양육의 막막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조손가정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개입 방향과 역할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첫째, 현재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재검토하여 지원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 조손가정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지프로그램의 개발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조모의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문화와 더불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부족한 원조관계망을 보완하는 지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저소득 | 조손가정 | 조모 | 양육경험 |

Abstract

Based on phenomenological view a research utilizing qualitative methodology to understand about parenting difficulty and stress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with grandmother in low-income grandparent-headed family was administra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experience with parenting stress of grandmother in low-income grandparent-headed family lead to economic hardship, grandchildren who are a barrier of old-age, and desolate parenting. This article implicates that a basis to guide a direction and role of social welfare intervention to alleviate parenting stress of grandmother in grandparent-headed family and to improve a life quality emergent on the results could be provided. Several considerations on this finding shows as follows. First, with currently active support project re-monitored and re-checked, support program could be needed to enlarge. Second, support program development and social support to decrease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of grandmother in grandparent-headed family could be necessary. With educational and cultural as well as mentoring program helpful for grandmother parenting designed, a support system to complement non-sufficient support network will be established together.

■ keyword : | Low-income | Grandparent-headed Gamily | Grandmothers | Parenting Experience |

접수일자 : 2019년 05월 30일
수정일자 : 2019년 06월 20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6월 20일
교신저자 : 신명주, e-mail : touch4388@hanmail.net

I. 서 론

조손가정은 노인가족의 어려움과 손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은 자신의 자녀양육이 이미 오래전에 끝난 상태에서 다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조모로 하여금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게 한다. 현대를 살고 있는 조모들은 전통적 권위를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대리모로서 손자녀를 양육했던 과거의 지위와 역할과는 달리 자녀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비어있는 부모의 자리를 대신하는 역할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가족형태로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다[1]. 성인자녀의 맞벌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과 달리 성인자녀의 사고, 질병, 별거, 이혼, 가출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맡은 조모는 혼자 남게 된 손자녀와 다시 가정을 이루는 경우 손자녀로 부터의 기쁨도 얻을 수 있지만, 양육에 대한 조모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수록 분개, 죄책감, 좌절감, 피로감, 외로움, 덫에 걸린 느낌 등의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갖게 된다[2].

조손가정은 대부분 성인자녀에게 부양받을 수 없는 조모들이 나이가 많고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놓여 있어서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손자녀는 물론 조모 또한 양육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3]. 손자녀 양육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조모는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4]. 또한 조모들은 손자녀의 욕구충족을 위해 자신의 문제들과 관련된 스트레스들을 간과하는 경향을 보인다[5]. 그러나 양육자의 스트레스는 피양육자에게 전가되며, 이는 아동의 정서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6].

따라서 본 연구는 저소득 조손가정의 조모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조모의 양육의 어려움과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이해하고자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조손가정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조사된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방향과 역할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1. 조손가정

조손가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198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조손가정이라는 용어사용과 함께 조손가정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후반 IMF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가족해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등장하게 된 가족유형으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7].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조손가정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조손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법조항도 없고 대리 양육자로서의 조부모의 법적 권한도 없는 실정[8] 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조손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관련연구와 사회복지 실천분야에서 조손가정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 정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1항, 2항'에서 규정하는 조손가족의 범위는 공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부모의 사망, 유기 등으로 인해 조부 또는 조모가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정의되고 있다.

2. 조손가정의 특징

우리나라 조손가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조모의 평균나이는 62.5세로 유배우자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은 대체로 낮으며, 양육 조모의 절반 가까이가 성인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손자녀 양육 동기는 '손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맡게 된 경우가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조손가정 중에는 양육비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거나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손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보면, 조부모의 80%이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생계의 대부분을 공적 부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손자녀 양육에 따른 부정적 효과로는 양육부담감이

가장 심각하다. 정서적 요인, 사회적 지원의 미비,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나 신체적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이다. 손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조모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게다가 여가시간을 즐기거나, 친구나 이웃들과의 교류시간도 감소되면서 정서적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11]. 또한 양육하다가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매우 취약하다. Mitchell(1969)[12]은 사회적 관계망을 개인들의 구조 사이의 특수한 연결군으로 정의하고 Leviatan(1999)[13], Seeman et al.(1995)[14]과 같은 학자들은 사회적 관계망은 신체적 기능 유지뿐만 아니라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3.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모든 가족은 생활주기를 통해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필연적으로 변화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고 거의 모든 가족들이 유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많은 스트레스 연구에서 이혼, 가족원의 죽음, 질병 사고등과 같은 중요한 생활사건이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생활스트레스가 부모, 자녀, 가족체계의 다양한 측면과 부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분명하다[15].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생활사건은 대부분의 가족에게서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축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상적 스트레스(daily hassles)의 개념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15].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상적 스트레스는 구조적이며 만성적인 빈곤, 생계를 위한 조손세대 조모의 취업 등 경제적·정서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손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는 데 특히 중요할 것이다.

양육스트레스는 일반가정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16]. 특히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스트레스요인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원활한 가족관계 형성을 저해한다[17].

저소득 조손가정의 조모는 취약한 경제적 환경과 심리적, 신체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지니며 가정 내의 역할과 지위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일반 부모들 보다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다. 실제로 조손가정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일반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조손가정 조모의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 조손가정 조모는 스트레스에 대처해 나갈 개인적·사회적 자원의 부족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적인 사건과 일상적인 긴장으로부터 더욱 취약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저소득 조손가정의 조모에 대한 탐색을 위해 “동해시 늘사랑사회서비스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 조손가정 중에서 13세 이하 아동들을 기준으로 면담을 거부한 가정을 제외하고 1년 이상 주 양육경험이 있는 조모 다섯 가정을 인터뷰하였다.

표 1. 연구 참여 가정의 특성

참여자	연령/세	건강	경제활동	손자녀			가족		조손가정 구성 사유
				성명	성별	연령/세	구성원	연령/세	
1	70	당뇨 혈압	무	이 ○○	남	10	친 조부	73	미혼부 자녀
2	66	고지혈	식당일	김 ○○	여	11	친 조부	67	이혼
3	69	디스크 당뇨	무	김 ○○	여	3	조부 미혼 아들	75 45	가출 후 이혼
4	71	관절	공공 근로	박 ○○	여	12	무		이혼
5	67	혈압 관절	단순 노무	최 ○○	남	11	친 조부	71	이혼

연구대상 가정의 손자녀가 원부모를 떠나 조모에게 맡겨진 사유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가 4가정이었으며, 미혼부 가정이 1가정이었다. 5가정 모두 친 조모에게 맡겨졌으며, 아버지와는 3가정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2. 자료수집방법

저소득 조손가정의 조모에 대한 탐색을 위한 방법으로 심층 인터뷰 실시하였다. 어떠한 주제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인터뷰를 통한 현상학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현상학적 연구에서 심층인터뷰는 연구자의 이론적 가설이 포화가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연구자는 선입견을 버리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심층인터뷰는 수집된 자료가 포화(saturation)되어 연구참여자들의 응답 내용에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진행하였다.

인터뷰 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다.

인터뷰장소는 가족의 일상과 생활세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참여자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매회 인터뷰는 동의를 얻어 녹취하였고 녹취록 작성은 될 수 있는 대로 연구자의 기억과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심층면담이 끝난 후에 바로 완성하려고 노력하였다.

녹음하면서 작성한 주위환경과 행동관찰 등에 대한 메모를 참고하여 가능한 한 연구참여자의 언어를 그대로 옮기려고 하였다. 2회기 이후 심층면담들은 연구자가 1회기 면담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이나 1회기 면담에서 탐색되지 않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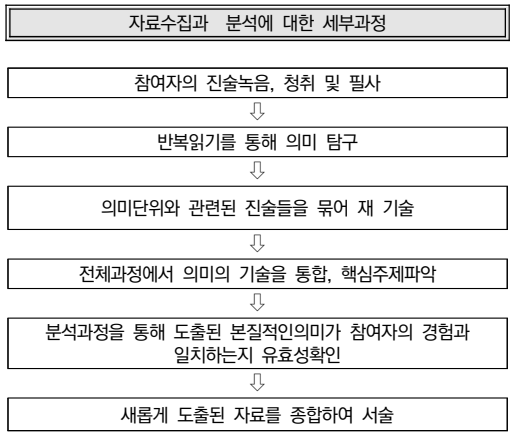
심층면담의 횟수는 연구참여자의 면담내용과 흐름에 따라 달랐는데, 연구참여자의 진술내용이 반복되어 더 이상 새로운 자료를 찾기 어려울 때까지 5회에서 8회까지 실시되었다.

3.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는 연구 과정 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윤리적 이슈에 대한 고려를 요구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자는 윤리적 고려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선정 시에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비밀보장과 함께 연구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참여 선택권과 면담내용녹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어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자료 수집을 위한 1차면담 시에 면담내용은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고 논문이 완성된 후에는 녹음된 파일의 폐기를 약속하였다. 연구진행 중이라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녹취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면담 내용 가운데 참여자가 원치 않은 부분은 삭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참여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신상을 제한적으로 기록하였다.

Ⅳ. 자료분석

이 연구는 현상학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과 경험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해하려고 하였다. 참여자의 관점으로 연구자가 현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생각과 경험을 개인의 용어로 서술하도록 노력했다. 밴 매넌(van Manen, 1990)[19]이 제시한 현상학적 자료 분석은 어떠한 가설도 없으며 구체적 방법이나 엄격한 분석적 요구사항도 갖지 않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괄호 치기와 직관적 글 읽기 및 묘사를 통해 의미를 추출하였다. 드러난 그대로의 현상을 매개로하여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의미를 보존한 채 본질을 파악하기위해 현상학적 접근에 따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Ⅴ. 분석결과

본 연구는 조손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손자녀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5명의 조손가정 조모들의 양육 경험을 심층면담한 내용에 대하여 현상학을 바탕으로 알아보았다.

객관적인 결론 도출을 위해 범주 대 범주, 의미 대 의미 비교를 통해 세부속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자료를 반복하여 재검토 한 뒤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범주나 개념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의하였다.

표 2. 저소득 조손가정의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경험 범주

현 상	주 제
돈이 없어 제일 문제래요. 학원에도 몬 보내고 무슨 돈이 있어서 주겠냐? 돈이 어디 있어야 말이지요. 있는 돈 다 까묵고 병원 한번 가 볼래도 돈도 없고 돈이 없으니 기름도 못 사 때고 늙은이가 이제 한 푼도 없으니	경제적 어려움
딱 죽고 싶지요. 뭐라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참 죽을 지경이래요.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기래요? 영감하고 싸움도 마이 하고 나도 이제 지쳤어요. 하지만 내다 버릴 수도 없고, 내 아니면 거둘 사람도 없고, 지나 내다 불쌍한 신세지요.	노후의 걸림돌이 된 손자녀
도대체 나라에서 도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 물어 볼래도 물어볼 때도 없고 책도 읽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해야 하는데 우리 늙은이가 뭘 하겠소 다른 집 애들처럼 놀이동산도 몬 데리고 가고 대학생들이 와서 하는 것(멘토)도 토요일, 일요일에 좀 데리고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동네 친구도 없고 촌구석에 뭐 할게 있겠어요. 정부에서 좀 해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양육의 막막함

본 연구결과의 저소득 조손가정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경험은 경제적 어려움, 노후의 걸림돌이 된 손자녀, 양육의 막막함으로 나타났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은 양육스트레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모의 주된 소득원은 국가보조금이며, 자신의 의료비, 생활비로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손자녀의 교육비, 양육비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모들은 노인성 질환 등 건강악화로 인해 소득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체계의 도움 없이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조모1 : 돈이 없어 제일 문제래요. 친구랑 미술학원 댕기고(다니고) 싶다 조르는데 돈이 어디 있어야 말이지요.

조모2 : 올 봄 부터는 일도 없고 해서 돈이 더 없으니 지하고 싶다는 걸 못해줘요. 여자애라 그런지 맘대로 사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무신(무슨) 돈이 있어 주겠나.

조모3: 막 저리고 쑤세 어디 큰 병원에 한번 가 볼래도 돈도 없고, 있는 돈도 다 까묵고. 자(손녀)를 업고 갈 수도 없고

조모4 : 메이커 옷 사달라고 하고 신발 이런 거지요. 요새 아들은 메이커가 중요하다니 넉넉지 않으니 장에 가서 사다주면 친구들은 이런 거 안 입고 다닌다고 할 때 나는 한다고 해주는데 속상하지요.

조모5 : 할애비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우리 나이에 할 일도 없고 가끔 막노동일이 있으면 나가고 그러지요. 밭일이라도 있음 해야지요. “이래 팔목이 아파도.” (등 돌리고 앉아계신 할아버지를 흘끔 쳐다봄.)

둘째. 조모들은 자녀들이 성장하고 출가하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자녀들의 이혼, 며느리의 가출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키우게 된 손자녀를 맡게 된 순간 막막한 생각이 들었다. 자녀들의 이혼도, 그로인해 손자녀를 키우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정된 노후 생활과 그동안의 삶을 보상받으며 살 줄 알았는데, 생각치도 못한 양육으로 인해 신세한탄이 가득했다. 그러나 손자녀를 양육할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것을 수용하고 양육하게 되었다.

조모1. 언제는 자보고 “니랑 내랑 고만 죽자.”이런 말도 해 봤어요.

조모2. '아'만 떨렁 데려다 놓고는 소식이 없으니,영감이랑 싸움도 많이 하고... 나도 이제 지쳤어요.

조부3. 우리 영감 할미도 자 때문에 어디 일하러도 못가고 하니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기래요?

셋째. 조모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손자녀들을 양육하지만, 주말이나 휴일에 다른 집 아이들처럼 부모와 함께 여가를 즐기거나 인기 장난감, 학용품 등도 사 줄 수 없어 많이 속상해 했다. 조모들은 다른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기죽지 않도록 키우고 싶지만 경제적 한계, 체력적 한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조모1. 도대체가 나라에서는 도움 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없어.

조모2. 커가는 아들이라 내가 공부도 좀하고 이것저것 궁금해서 상담도 받아보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은 참 많지요.

조부3. 요새 아들은 책도 읽어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해야 하는데 우리 같은 늙은이가 뭘 하겠소...그래 그런지 말을 잘 못해요. 그저 지 혼자 테레비 켜 놓고 보다 자고 . 그게 다래요.

조모4. 학교 준비물을 몰라 누구한테 물어 볼래도 친한 사람이 없어서 물어 볼 곳도 없고. 지나 내다 짜증만내고 해결방법이 없지요. 지난번에는 그동안 안하던 말대꾸도 하더라고요.

조모5. 그 뭐 대학생들이 와서 하는 것도 해 봤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자는 무신날(평일)은 학원에서 저녁때가 다 돼야 오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좀 데리고 애기해주면 좋겠는데 또 그럴 때는 안 온다고 하니 고마 치워버렸지요.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조손가정이 증가하며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들은 해체되거나 약화된 가족관계를 복원하거나 재구성하는 이음새 역할을 하는 동시에 친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조손가정 조모들이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손자녀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을 희생하는 조모의 경험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저소득 조손가정 조모를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조모의 양육경험의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조손가정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조손가정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저소득 조손가정 조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손자녀가 하고 싶은 것과 갖고 싶어 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에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신체적 문제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현재 저소득 조손가정에 지원되는 양육보조금, 보육비, 학자금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조부모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가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로 건강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모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의료비 지원과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가 병으로 불편을 겪게 될 경우 손자녀들은 양육을 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조손가정에 대한 지역 보건소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무료 예방접종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저소득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최소화 하고 손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욕구 및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경제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수립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조손가족에 대한 개념정의와 정책지원 등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

조손가정을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대안적인 가족의 형태로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조손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나 정책개발 및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조손가정의 증가를 막기 위해 가족해체의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부모가 양육을 감당 할 수 있도록 예방정책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노후의 걸림돌이 된 손자녀이다. 조모들은 손자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손자녀 양육을 감당하게 되었다. 양육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맡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녀들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해 한탄하며 자의적, 타의적으로 양육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원가족과의 갈등을 초래하며 이러한 상황은 잠재적 분노 또는 우울감으로 고착되어 손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저소득 조손가정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조모가 자신의 삶과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지프로그램의 개발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배우자와의 양육분담, 휴식 및 여가활동계획 등 자신만의 시간관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의 멘토링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육의 막막함을 해소하기위해 지자체의 지원기관은 양육도우미를 파견하여 실질적인 양육에 도움을 제공하고 조모의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시대적 흐름과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 의사소통 방법, 감정코칭, 문화활동, 손자녀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 제공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올바른 양육을 위해 손자녀를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양육방법, 손자녀에 대한 이해, 정보습득 및 교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어야한다, 더불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부족한 원조관계망을 보완하는 지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저소득 조손가정의 조모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한 기관의 조손가정을 임의 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국내 모든 조손가정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한계 있다. 둘째, 아동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조모의 연령과 양육기간이 고루 배치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표집 단위를 확대하고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조모가 주로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적 현실을 고려하여 조모들에 초점을 맞춰 양육경험들을 살펴보았으나, 자녀 양육에 있어 남녀의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변화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는 조모와 더불어 손자녀 양육에 대한 조부의 참여와 책임도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조부의 양육경험과 이로 인한 조부모의 부부 및 가족관계의 변화를 다루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장승옥, 권은정, “조손가정의 문제점과 지원방안,” 사회과학논총, 제29권, 제1호, pp.351-373, 2010.

[2] 김양희, 백선아, “조손가정 손자녀의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부모 관련 요인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 제2권, 제1호, p.137, 2005.

[3] 김혜영, *조손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점, 늘어나는 조손가정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정책토론회 자료집, pp.1-45, 2009.

[4] 권인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아동간호학회지, 제6권, 제2호, pp.212-223, 2001.

[5] M. Minkler, K. M. Roe, and M. Price, “The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of grand - mothers rasing grandchildren in the crack cocaine epidemic,” The Gerontoligist, Vol.32, No.6, pp.752-761, 1992.

[6] 김세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의 증상,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간의 관계,” 한

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330-339, 2012.
[7] 변화순, 원영애, 김성경, *최근 가족해체 실태 및 복지대책,* 한국여성개발원, 2000.
[8] 박현식, "조손가족의 특징과 손자녀: 양육지속의사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노년학, 제30권, 제3호, pp.779-791, 2010.
[9] 김미영, 윤혜미, "저소득조손가족 조모와 손자녀의 가족관계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No.50, pp.145-177, 2015.
[10] 김효정, "가구유형이 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조부모와 손자녀가 동거한 가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12권, pp.15-29, 2004.
[11] 배진희,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양육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Vol.29, pp.67-94, 2007.
[12] Mitchell, *Social Network sin Urban Situation,* Manchester, 1969.
[13] U. Leviatan, "Contribution of social arrangement to the attainment of successful aging - the experience of the Israeli Kibbutz,"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 and Social Science, No.54, pp.205-213, 1999.
[14] T. E. Seeman, L. F. Berkman, P. Charpentier, D. Blazer, M. Albert, and M. Tinetti, "Behavioral and psychosocial predictors of physical performance: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No.50, pp.177-183, 1995.
[15] K. A. Crnic and M. Greenberg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No.61, pp.1628-1637, 1990.
[16] 고성혜,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8호, pp.21-37, 1994.
[17] 이재경, 이래혁, "저소득층의 물질적 어려움과 음주 : 자아존중감과 가족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7호, pp.552-565, 2016.
[18] S. J. Kelly, "Caregivers stress i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25, No.4, pp.331-337, 1993.
[19] M. van Manen, *Researching Lived Experiences: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The Althouse Press, 1990.

저 자 소 개

신 명 주(Myeong-ju Shin) 정회원

- 2011년 2월 : 한중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 석사)
- 2018년 8월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18년 8월 ~ 현재 : 상지대학교 외래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사회복지행정